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운동의 혁명적 개조와 이념의 퇴행성, 이중성의 딜레마

민중민주(PD)파 학생운동의 집합적 특성 연구

고 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논문요약〉

1980년대 초에서 1990년대 초까지 민족해방(NL)파와 함께 학생운동의 양대 세력을 형성했던 민중민주(PD)파 학생운동은 변혁운동의 전통적 관념, 노선, 방법들을 대체하는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고자 했다. 그들은 한국에서 자본주의의 고도의 발전 현상을 과학적 변혁운동이론의 틀 속에 담고자 했고, 정서적 인간관계에 기초한 학생운동의 불철저성을 과학적 이론에 입각한 토론과 논쟁 그리고 혁명적 전위주의에 기초한 조직시스템으로 바꿔내는 새로운 노선을 정립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학생운동 개조의 과제를 역사 속에서 소멸해 가는 레닌주의의 혁명전략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끊임없는 자기모순에 직면하였다.

■ 주요어: 민중민주(PD)파, 민족해방(NL)파, 학생운동, 레닌주의, 전위주의

1. 문제의식, 기존 연구와 이론적 배경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까지의 시기는 한국사회에서 학생운동의 급진적 에너지가 최대로 압축되어 폭발한 시기였다. 학생운동은 한국의 정치변동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였다(이수인 2008b, 232). 이 시기에 민중민주(PD)파 학생운동은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초중반까지 민족해방(NL)파 학생운동과 함께 학생운동의 양대 세력을 형성했던 중요한 사회현상이었다. 민족해방파와 민중민주파는 학생운동의 방향과 노선을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줄기차게 논쟁을 전개했다. 그것은 한국사회의 구조 변화에 대한 해석과 대응에서 저항운동세력 내부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깊은 것이었다.

민족해방파와 민중민주파간의 노선 대립은 그 역사적 뿌리가 매우 깊었다. 그것의 연원은 보통 1980년대 초 무림-학림 논쟁을 출발점으로 삼지만, 실제로는 훨씬 이전인 1970년대 중반부터 대두하기 시작한 '현장론'과 '정치투쟁론' 사이의 논쟁에서 싹이 트기 시작하여, 유신정권 붕괴 이후 '민주화의 봄' 시기에 벌어진 '단계적 투쟁론'과 '전면적 투쟁론' 사이의 논쟁으로 이어지고, 또 1980년대 초반 '야학비판'과 '학생운동의 전망' 사이의 논쟁으로 전개되어 온 맥락 위에 있다(임경민 1989, 404). 그리고 이는 1980년대 중반의 MC파와 MT파 사이의 논쟁,[1] 민족해방파와 제헌의회(CA)파 사이의 논쟁을 거쳐 1980년대 말 이후 민족해방파와 민중민주파 사이의 논쟁으로 이어져 나갔다.

민중민주파 학생운동이 등장하게 된 계기는 일단 기성의 학생운동

1) MC는 주류(main current)를 뜻하는 영문 약자이고, MT는 학림을 계승한 그룹이 결성한 '민주화투쟁위원회'의 약자인 '민투'의 영어식 표현이다(김윤철 2012).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 갖는 한계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1980년 민주화의 봄이 광주민중항쟁과 같은 처절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로 끝나고 말았는지에 대한 평가와 반성에서 그 원인을 기성의 학생운동에 내재한 조직보신주의, 준비론, 대기주의에서 찾고자 했다(김윤철 2012). 그리고 그들은 그런 불철저한 투쟁의 근원이 낭만적 인간관계에 기초한 낮은 수준의 과학성과 낙후된 조직형태에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레닌주의의 혁명이론을 도입하여 이를 기반으로 학생운동을 투철한 혁명적 운동으로 개조해 내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시도가 역사적으로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그것은 1990년대 초까지 학생운동을 양분하면서 학생사회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쳐왔고, 나아가 그것을 통해 의식화되고 훈련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사회의 중추적 세대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분석될만한 가치가 있다.

이처럼 민중민주파 학생운동은 1980년대에 절정에 달한 한국 학생운동사의 양대 축을 이뤄온 중요한 사회운동의 조류이며,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또한 지대하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민주파 학생운동의 활동상에 대한 자료정리와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소수의 문헌자료가 있긴 하나 저널리즘의 취재차원이며(박덕건 1989; 임경민 1989; 이동규 1989; 유길성 1989), 연구차원에서는 주로 사상 이론 논쟁 중심이어서 활동상을 체계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다. 연구차원에서의 글들로는 조희연(1988), 강신철 외(1988), 강형민(1990)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1990년대 중반 이후 수행된 학생운동에 대한 연구는 이념과 노선에 대한 연구에서 나아가 학생운동 행위주체의 관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학생운동 문화 속에서 형성된 하위문화의 특성(김원 2011), 학생운동 조직의 변화과정(은수미 2003), 행위자의 정체성 등에 주목하여 사회운동 참여의 동기와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이승훈 2005) 등이 있

었다(이희영 2005, 109-110). 그런데 이들 연구들은 개별적 행위 참여자들의 생애체험을 중시하다 보니 미시적인 면이 강한 편이어서 집단적 특성의 구조와 흐름 등에 대한 연구와 정리가 미진하다는 문제가 있다. 다만 은수미의 글이 조금 다른데, 그것은 일반적인 이념노선에 대한 연구나 역으로 개별적 행위참여자의 동기나 과정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MT-MC논쟁 시기에 학생운동의 조직구조와 재생산 메커니즘을 다루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학생운동 집단의 차별성에 주목하면서 특정집단의 영향력이 커지고 확산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들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가령 조대엽(2005)은 반미주의(민족해방파)를 추구하던 집단이 이념의 내재성과 대중화전략을 통해 학생운동의 주류로 부상했음을 규명하고 있다. 채장수(2007)는 학생대중이 가진 민족주의에 대한 친화성으로 인해 민족해방파가 대세를 장악했다고 말한다(이수인 2008a, 235). 또 이수인(2008b, 237)도 학생운동 집단의 행위지향과 실천양태들을 비교하고 이런 요소들이 어떤 주체적·객관적 조건과 결합하여 민족해방파의 우세를 가져왔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글은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학생운동 내에서 어떻게 특정파벌이 승리 혹은 패배하게 되었는지와 같은 문제에 궁극적 초점을 맞추지는 않는다. 그 같은 질문은 학생운동의 내재적 관점에서 제기되는 것으로서 적실성이 있으나 2010년대의 문제제기로서는 다소 뒤떨어진 감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글이 던지는 중요한 질문은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의 격렬한 변화 속에서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등장한 민중민주파 학생운동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 어떻게 한국 학생운동에 질이 현격히 다른 두 개의 학생운동이 분화되어 나타나게 되었고, 그 속에서 민중민주파 학생운동세력이 보여

주는 집합적 특성을 분석해 보면서, 그것이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갖는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포착해 보려는 시도이다.

여기서 집합적 특성이라는 개념은 사회운동의 구성주의적 접근법에서 강조하는 '집합적 정체성'이란 개념을 참고하여 사용하고자 했다.[2] 이 접근은 사회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참여자들이 자신의 동조자들과의 연대성을 발견하고 자신과 반대자들을 구별하는 집합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 같은 구성의 결과는 '집합행동의 틀'(Snow, Rochford, Worden, and Benford 1986)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집합적 정체성'(Mellucci 1989) 혹은 '정치의식'(Morris 1984)의 형태가 될 수도 있다(임희섭 1999, 129 재인용). 그것은 현재의 사회적 조건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의식, 불만스러운 현재의 조건과 고통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we)'에 대한 집합적 정체성, 그 같은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집합행동이 필요하다는 대행자의 의식 등의 요소들로 구성된다. 인지적·상징적·문화적 요소들(신념, 가치, 규범, 전략 등)과 사회 심리적 요소들(의식, 감정, 헌신, 충성, 연대성, 정체성 등)을 포함한다. 이 글은 민중민주파 학생운동의 조직과 문화, 대중사업방식, 사회적 기반과 배출 같은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집합적 정체성'의 개념에 접근해 보고자 했다.

이 글은 일차적으로 학생운동에 관한 여러 가지 1, 2차 문헌자료들을 리뷰하여 담론 분석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자료의 절대적 부족은 민중민주파 학생운동세력에 참여했던 주요 리더들과의 구술 면담에 대한

2) 구성주의적 접근은 사회운동이 객관적인 구조적 긴장이나 개인적, 사회 심리적 불만에 의해 자동적으로 발생하기보다는 다수의 개인들이 사회적 조건에 대한 기존의 인식 틀을 재구성하고 더 나아가 현재의 조건을 변화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운동에의 참여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해석하는 '집합행동의 틀(collective action frame)'을 공유하였을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임희섭 1999, 163).

분석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면담은 PD파 학생운동에서 지도적 활동을 수행했던 5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주요 구술면담자와 학생운동 관련 활동내용

대상자 (가명)	학번	당시 소속	직책	현재 직업	구술날짜
정석진	82	MT그룹	MT그룹학생총책 OO대 중앙포(po)	기업운영	2013/05/13
정기준	87	AMC그룹	핵심활동가	정당인	2013/02/07
성지윤	88	AMC그룹	서총련 북부지구 정책위원장	학자	2013/02/19
김윤식	87	제파PD그룹	좌파정치조직연합(SLAY) 의장	정당인	2013/02/27
박준구	89	진보학생정치연합 (진학련)	진학련중앙본부 정책기획담당	정당인	2013/03/26

2. 민중민주파 학생운동의 전반기: MT파 학생운동

1) MT파 학생운동의 집합적 특성

MT파 학생운동은 민중민주파 학생운동의 전반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특히 1984년~1985년에는 민주화추진위원회(일명 민추위)라는 전위조직의 성격을 지향하는 지하조직이 결성되어 활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주로 학생운동에서 학림 출신의 운동가들로 노동현장과 학교현장을 배경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사회에 대한 성격 분석을 토대로 민족민주혁명론(NDR)이라는 혁명노선을 제창했다. 이들의 운동노선 정립에는 레닌주의의 혁명이론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사상과 전위주의의 노선이 강한 영향을 주었다. 이들은 혁명운동 방법에 관한 레닌의 저작물들을 번역하여 읽고 비밀리에 대학가에 유포시켰다. 이들은 지하서클 선후배 인맥을 바탕으로 학생운동과 깊은 연계를 갖고 있었다. 이들의 지도 덕분에 MT파 학생운동은 1984년~1985년에 대학가의 학생운동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었다. 광주학살 등에 대한 선도적 문제제기와 삼민(민족, 민주, 민중)의 이념을 담는 삼민투의 건설 등은 주로 MT파 학생운동에 의해 주도되었다.

MT파 학생운동세력은 패밀리(family)라 불리는 지하서클들의 연합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들은 소규모 의식화조직으로 볼 수 있으며 1980년대 학생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지하서클은 대부분 3학년까지로 구성되며, 4학년 이후 성원 중 일부만이 느슨한 인적 연결망을 형성하거나 전위적 조직(예를 들어 민주화추진위원회)의 성원으로서 학생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나머지 4학년 성원들은 현장에 투신하거나 시위 주도로 감옥에 가는 경우, 그리고 운동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로 나뉘었다. 3학년들은 조직재생산책임, 노동야학, 선전선동, 전투조, 공개서클 담당 등으로 역할이 나뉘었다(은수미 2003, 208-209).

이들 지하서클들은 학생운동의 중심부대로서 1984년 중반 이후 본격적인 노선투쟁을 전개하게 되는데, 서울대의 경우를 예로 들면 대학문화연구회, 사회과학연구회가 학림을 잇는 MT파 학생운동의 중심을 형성하게 되고, 경제법학회, 농촌법학회가 무림을 잇는 MC파 학생운동의 중심을 이루게 된다. 그 중간 영역에는 아카데미학생회(아카), 후진국경

제연구회(후경) 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 1984년~1985년도 MT-MC논쟁 과정에서 MT파 학생운동이 주도권을 쥐게 된 데에는 중간그룹들이 MT파 노선을 지지하고 들어옴으로써 가능해진 것이었다.

MT파와 MC파 간의 이때 논쟁은 주로 조직노선과 투쟁노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당시 학생운동의 조직은 일명 포시스템(po-system)이라는 구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포시스템이란 포스트체제라는 말의 영어식 약칭 표현으로서, 포(po)란 의식화조직의 재생산을 책임지는 담당자와 달리 투쟁에 대중을 동원하는 실천 활동의 책임을 맡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학과포, 단과대포, 중앙포 등으로 이루어진다. 포시스템은 1970년대부터 이어져 온 지하서클대표자회의를 해체하고 1983년부터 도입되었는데, 이는 의식화조직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대중 전체에게 호소하고 이들을 동원하여 실천 활동을 조직하려는 것이었다(은수미 2003, 210). 보통 '포'는 선배학번 라인에서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지명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포시스템은 처음 1984년 상반기까지는 단과대학별 포시스템(일명 단포)이었다. 그것은 단과대포에서 학과포로 이어지는 탑다운 방식의 투쟁동원체계로서 점조직의 보안성을 유지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런데 MT파가 이 시스템이 서클에 소속된 학생대중은 투쟁에 아무런 의미 설명이나 공유 없이 단순 동원되는 현상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쟁이 시작된다(정석진 구술).

하지만 양대 그룹 간 논쟁에서 더 중요한 지점은 다른 데 있었다. MC그룹은 과 학회, 서클 등 일반대중들의 의식화와 조직활동을 중시하였다면, MT파는 좀 더 선진적 대중의 선도적 활동과 투쟁을 중시하였다. 이런 차이는 정세를 보는 시각의 차이와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당시 전두환 정권에 의한 유화조치를 두고, MC파는 실리주의의 관점에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변혁운동의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면, MT파는 개방공간을 공격적으로 활용하여 전두환 정권이 유화국면에서 받기 어려운 요구들을 던지면서 치고 나가면서 반민주성, 반민족성, 반통일성을 드러내야 하는데, 이런 역할을 학생운동이 선도적 입장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포시스템의 가장 큰 성과는 각 '포'들이 과 학회 등의 대중조직을 광범위하게 활성화시켜 기존의 의식화조직-지하서클대표자회의 체계에 비해 학생운동의 대중적 확산에 기여하였는데(은수미 2003, 212), MC파는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자 했다. 반면에 MT파는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는 대중동원력을 끌어올리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MC파의 주도성에 도전을 하게 된다. 이들의 논리는 '대중투쟁의 시대가 왔다'는 인식하에 '대중 전체를 투쟁의 전선에 내세우려면 의식화와 투쟁 모두를 대규모로 조직할 반합법 투쟁조직을 결성하여 기존 학생회-포시스템의 실천 활동에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정석진 구술). 그리고 MT파는 MC파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 1984년 10월 21일 '반독재민주화투쟁위원회(민투)'를 결성하고, 11월 3일에는 연합조직인 '전국민주화투쟁학생연합(전민투)'을 출범시키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다음 날 민정당사농성투쟁을 감행하게 된다. 민투는 1985년 '민중민주화와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위원회(삼민투)'로 발전하게 된다(은수미 2003, 214).

MT-MC파 간의 논쟁은 대체로 MT파 쪽에 유리하게 전개되었지만, 포시스템을 바로 즉각적으로 해체시키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MC파는 포체계를 그대로 가동시켰고, MT파 내부에서도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포시스템과 삼민투 체계가 공존했다. 그래서 논쟁 초기에는 단포 위에 중앙포를 하나 더 설치하고, 이 중앙포가 학교 간 연합모임에 참여하는데, 이 중앙포를 MT파가 맡는 것으로 정리되기도 하였다

(정석진 구술). 하지만 포시스템의 내적 구조도 일정한 변화를 겪기도 하였는데, 단포 밑에 과포를 없애는 대신 전투조를 편성하여 매트릭스 조직구조로 만들어서 상향식 논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투쟁력의 극대화를 꾀했다.

MT파의 노선은 한때나마 MC파를 압도하면서 상당히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1980년대 초중반 경부터 시작된 역동적 정세변화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화되지 못한 대중역량 사이의 불일치는 선도적 정치투쟁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논쟁의 중간영역에 있던 그룹들이 MT파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고, MC파도 역동적인 정세변화를 보면서 더 이상 소극적인 자세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쪽으로 나왔다. 1985년 5월 미문화원 점거농성투쟁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계기였다. 처음에 이 투쟁은 MT파가 기획·제안하였고, MT파 서울대 삼민투 공동위원장의 주도 아래 집행하기로 했는데, MC파는 처음에 이를 반대하였으나 나중에 입장을 선회하여 MC파 삼민투 공동위원장 주도로 집행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양쪽 간에 갈등이 커지기도 했다.

그러나 MT파는 노선투쟁에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1985년 하반기 이후 급속한 와해를 맞게 된다. MT파 학생운동을 배후에서 지도하던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조직의 문용식 등 주요 인물 수십 명이 1985년 10월 29일 공안당국의 검거와 수배로 지도력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현상적으로 대학가 학생운동이 여전히 MT파 계열의 주도로 움직여 나가고 있었지만, 내적으로 MT파 학생운동은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침체상태로 들어간 것이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무림-MC파 계열의 학생운동 중 일부는 주체사상을 받아들여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NLPDR) 노선을 정립하고, 학생운동의 주도권 쟁탈을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 공백기를 대체해 들어온 것이 다름 아닌 주체사상파(주사파) 강철서신의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영향력 아래 조직된 '반미자주화와 반파쇼민주화 투쟁위원회(자민투)' 체계였다(은수미 2003, 216).

MT파의 학생운동이 스스로의 자생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배후에서 이들을 지도하던 전위적 조직이 검거되면서 와해되자 MT파 학생운동은 방향성을 상실하고 무력화되어 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MT파 학생운동의 리더이면서 서울대 학생운동에서 중앙포의 역할을 했던 정석진 씨는 외부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사실상 맥락을 모른 채 춤을 춘 면이 많았다"고 구술했다. MT파 학생운동은 민추위의 전위조직 성원으로서 학생운동을 먼저 졸업한 선배의 지도에 의존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지시-하달구조였다고 말했다.

MT파와 MC파 간 논쟁은 상당히 험악하고 거칠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석진 씨에 의하면 MC파의 리더와 논쟁하다 주먹다짐을 벌이기도 했고, 평소의 관계가 매우 적대적 권력투쟁의 양상을 나타냈다고 했다. 정석진 씨는 "학생운동 내부에 권력지향과 열정의 혼재로 타협할 수 있는 것을 못했다"고 했으며, 당시 학생운동 활동가들은 "정신적으로 피폐" 했고, "상당히 시니컬(냉소적)"했으며, "민주적 토론과 의사결정방식에 익숙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MT파와 MC파 간 첨예한 논쟁은 학생운동 활동가들의 정신적 피폐화와 피로감을 누적시켰고, 이것이 결국 품성론을 앞세운 주체사상에 매료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MT파의 또 다른 문제는 의식화조직의 가장 기본적 단위이자 공동체적 유대감의 접착제 역할을 수행해 왔던 지하서클(일명 패밀리)을 섣부르게 해체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서클의 구조와 활동을 서클주의라고 규정하고, 변혁운동에 대한 목적의식적 인간관계에 기초한 조직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보면서 서클을 일시에 해체시키고 말았다. 정석진 씨는

MT파가 “학생운동의 성격 자체가 아마추어적이고 서클적일 수밖에 없으며, 학생운동의 힘이 결국은 서클이라는 일차적 공동체에서 나온다는 것을 간과”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에 반해 주사파의 자민투체계는 서클에 해당하는 기층조직을 파괴하기보다는 꾸준히 재생산해 나갔으며, 이는 MT파 학생운동이 민족해방파에 급속하게 밀린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MT파 학생운동은 한 때의 정치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검거에 따른 조직적 붕괴와 전략적 결정의 오류가 겹치면서 급속히 세력이 위축되고 말았다. 여기에는 MT파의 정세관과 선도적 투쟁론으로 대표되는 전투적 투쟁노선이 많이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전투적 투쟁노선으로 인해 대중과 유리되었으며, 선도적 투쟁을 통해 확보된 공간에서 대중과 결합하는 후속작업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층 대중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던 것이다.

2) MT파 학생운동의 쇠퇴와 함의

1986년도 학생운동은 초기에는 MT파 계열 학생운동의 주도로 ‘전국민족민주투쟁학생연맹(민민학련)’을 결성하고 활동에 돌입하였으나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민족해방파 학생운동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여 급속하게 주도권을 상실해 갔다. 그래서 1986년 여름쯤이면 이미 전국 학생운동의 판도는 민족해방파가 거의 장악하게 되고, MT파 계열 학생운동은 7~8개 정도의 대학 학생회를 장악한 소수파 집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과거 민추위-MT파 계열의 맥을 잇던 노동현장과 대학가의 활동가들이 전위적 조직을 재건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데, 이것이 제헌의회(CA)그룹이었다. 당시 민족해방파가 반제투쟁과 민주헌법쟁취투쟁(직선제개헌투쟁)을 강조했다면, 제헌의회그룹은 민중지원투쟁(노학연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대투쟁)과 민중헌법의 쟁취를 강조했다. 특히 개헌투쟁과 관련해서 민족해방파는 자유주의 야당세력과의 연대를 좀 더 강하게 주장했다면, 제헌의회그룹은 자유주의 야당세력과의 차별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는 대중성을 강조하던 무림(MC)노선과 선도성을 강조하던 학림(MT)노선의 차이에 뿌리를 둔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제헌의회파도 공안당국의 수사와 검거로 와해되고 다시 지도력의 위기를 겪게 된다. 그 후 노동자해방투쟁동맹이라는 전위적 조직으로 다시 지도력을 복원하였지만 뚜렷한 반전을 이루어내지는 못한 채 지속되고 있었다.

1987년 6월 항쟁과 직선제의 실시로 정치상황은 크게 바뀌었다. 대통령선거에 대한 대응을 놓고 학생운동은 김대중 후보 비판적지지론, 야권후보단일화론, 민중독자후보론으로 분열하게 되는데, NL주사파의 주류가 비판적 지지론을 취하고 있었다면, 제헌의회파는 민중독자후보론의 노선을 표방하고 재야인사 백기완을 후보로 옹립했다. 이때 민중독자후보노선의 진영에는 제헌의회파 이외에도 주체사상의 수용을 거부하던 NL비주사파가 독자후보노선 쪽으로 가세함으로써 민족해방파-제헌의회파의 구도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최성일 1990, 13). 1987년 대통령선거에서 군사정권의 후예인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고, 비판적 지지론을 표방한 민족해방파는 상당한 타격을 받고 주춤거리는 상황이었다. 이에 반해 김대중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에 강한 반대를 표방했던 민중독자후보파는 선거에서 일정한 반향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뒤에 범민중민주파 학생운동의 틀이 형성되는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민족해방파는 1987년 대통령선거 이후에도 여전히 학생운동의 다수파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백기완선거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모였던 세력들은 대통령선거 이후 1988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모색하고 있었다. 그런데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던 학생운동의 중심세력이었던 제헌의회파가 다시 다수파와 소수파로 분열하고 그중 다수파가 민족해방파의 노선에 호응하면서 민족해방파-제헌의회파 구도는 다시 한 번 커다란 변동을 맞게 된다(최성일 1990, 13).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민족민주혁명(NDR)노선에 입각하여 학생운동의 판도를 양분해 오던 제헌의회파 학생운동세력 대신에 민중민주파(PD: People's Democracy Revolution) 학생운동세력이 부상하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민족해방파-민중민주파 구도가 학생운동의 판도를 이끌게 되었다.

MT-제헌의회파는 당시 학생운동 내부에서 볼 때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와 레닌의 혁명론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치적 실천과 노선투쟁의 무기로 활용하고자 했다. 그들이 표방한 선도적 투쟁론과 선도적 투쟁체 건설론은 전통적 운동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위해 전위의 목적의식적 실천을 강조한 레닌주의를 충실하게 적용하려한 시도였다. 그리고 확고하게 정립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변혁노선이라 할 수 있는 민족민주혁명론(NDR)은 한국사회의 구조와 성격을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로 새롭게 규정하고 레닌의 혁명론에서 빌려온 2단계 연속혁명론을 이에 접맥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MT파 학생운동은 변혁운동의 목적에 종속되는 인간관계에 대한 과도한 강조에 기초한 조직문화, 전위적 조직에 대한 지나친 강조, 대중의 자발적 운동영역에 대한 과소평가는 한때 그들이 학생운동의 주도권을 쥐게 하기도 했으나 결국에는 공안당국의 탄압과 지도조직의 와해, 그리고 민족해방파의 도전 앞에서 급속히 무력화되는 길을 걸어야 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3. 민중민주(PD)파 학생운동의 전개와 주요 정파

1) 민중민주파 학생운동의 전개와 주요 정파

민중민주(PD)파 학생운동은 기본적으로 민족해방파의 노선을 반대하면서, 동시에 기존에 민족해방파와 맞섰던 제헌의회파의 한계도 비판하면서 등장한다. 민중민주파 학생운동은 1989년에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하며, 민족해방파와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비주류 학생운동의 대표세력으로 성장하게 된다.

민중민주파 학생운동은 기본적으로는 NDR노선을 계승하는 성격이 강했다. 무엇보다 레닌주의 혁명노선을 기반으로 삼아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을 실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CA그룹의 문제의식을 발전시키고자 했다(정기준 구술). 선도적 투쟁과 전위조직을 통한 목적의식적 변혁활동을 강조했다는 점에서도 그러했다. 다만 이들이 제헌의회파의 노선과 다른 것이 있었다면, 민족민주혁명(NDR)노선이 레닌의 초기 사상의 한계를 답습하여 한국사회에 기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민족해방파의 개량주의와 철저하게 단절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레닌주의적 문제의식을 더욱 급진화시키고자 했다는 것이다.[3] 따라서 민중민주파 학생운동이라고 지칭할 때는 제헌의회파 계열의 학생운동을 포함하여 새롭게 등장한 레닌주의노선에 입각하고자 하는 학생운동 제 세력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

3) 민족해방파 학생활동가들은 민중민주파 학생활동가들을 향해 "자신이 마치 재림레닌이라도 되는 것처럼 혁명이론을 떠벌리는 쁘띠인텔리이며 투쟁없이는 살아도 논쟁 없이는 못사는 좌익공론가 운동의 휴식분자…"라는 표현으로 비판했다(유길성 1989, 29).

민중민주파 학생운동세력 내부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 정파조직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체로는 크게 몇 개의 줄기로 대별될 수 있는데, 반제반파쇼(제파)PD그룹, 반제반독점민중민주혁명그룹(AMC그룹), 진보학생정치연합(진학련), 그리고 MT-제헌의회파의 연장선상에 서 있는 사노맹계열의 전국민주주의학생연맹(전민학련) 등으로 나뉜다. 그 외에도 CPC파, 트로츠키파 등이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주요 세 정파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제파PD그룹

제파PD 학생운동그룹은 보임·다산계라 불리는 노동운동 정파조직의 영향하에서 성장했다. 보임·다산계는 일찍 1986년 조직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 일본 등에서 이념서적을 입수하여 서울, 경기지역을 무대로 대학생과 근로자들에게 의식화교육을 시키는 한편, 이를 출판하려했다는 사건이었다(동아일보 1986/05/15). 보임·다산사건 후 이들은 내부적으로 '반제반파쇼민중민주주의혁명론'이라는 변혁운동노선으로 자기정체성을 확립하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내부적으로 자신들을 '제파PD'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들은 큰 틀에서 변혁운동노선을 공유했지만, 실제 활동에서는 인천, 안양, 서울, 부산, 울산 등 공단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조직으로 분산되어 활동하고 있었다(김윤식 구술).

제파PD 학생운동그룹은 바로 제파PD 노동운동 정파조직과 관련을 맺으면서 태동했다. 그런데 노동운동 정파조직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활동하다 보니 제파PD 학생운동조직들은 바깥의 어떤 선과 연결을 맺느냐에 따라 분화되고 조직의 계통이 달라졌다. 그럼에도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바깥 노동운동 정파조직의 학생운동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지도는 부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했다는 점이다.

대체로 제파PD파 학생운동그룹은 그 과정에서 크게 두 개의 계열로 나눌 수 있었는데, 그것은 각각 AP그룹(일명 '선언조직')과 AF그룹(일명 '반파')으로 불렸다. AP그룹은 서울대, 연대, 고대 등에 주로 분포했고, 반파그룹은 서강대, 숙명여대, 중앙대, 홍익대, 한성대 등에 분포했다. 이들은 혁명론의 관점에서 양자 간 차이는 뚜렷이 없었으나, 시기별 정세인식이나 전술운영이나 대중조직관에서는 상당히 달랐다. 하지만 그것 역시도 기본적 관점의 차이라기보다는 주로는 서로 소통이 없었던 데서 기인했다. 이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으며, 민중민주파 학생운동그룹들의 전국적 연대조직인 '민중운동탄압분쇄 및 파쇼악법·폭압기구철폐를 위한 학생특별위원회연합(일명 '학특연')과 학교별 좌파조직의 대표자들 간의 논의테이블인 'SPY(NPY)'라는 정파 간 테이블에서 논의를 통해 주요 노선과 방침을 결정했다.[4] 이는 민족해방파 내부의 소통이 다양한 채널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반면에, 민중민주파는 진영 내부의 소통구조가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김윤식 구술).

제파PD 학생운동그룹의 세력분포는 시기별로 약간 다르다. AP그룹은 1990년 상반기에 AMC그룹과 연대하여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배출한다. 1990년 하반기부터 1991년 상반기에는 서강대 총학생회장을 비롯해

---

4) 학특연은 민중민주파 학생운동그룹들이 민족해방파에 맞서 대중적이고 준공개적인 실천활동을 위해 1989년에 학교별로 발족한 학생특별위원회의 연합조직이었다. 민중민주파 학생운동 세력들은 이 조직을 서총련 산하의 공식기구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민족해방파에 의해 거부당했다. 그래서 민중민주파는 이 기구를 독자적으로 발족하게 되었다(『경향신문』, 1989/10/28). SPY(NPY)는 Seoul(National) Political Yeonhap의 약자로서 학교별로 좌파조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반합법과 비합법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정치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민중민주파 내 각 정파그룹 간의 논의는 주로 이런 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후 사노맹 계열의 학생조직인 전국민주주의학생연맹(전민학련)이 가세하면서 SLAY라는 명칭으로 바뀐다.

숙명여대, 인하대 등의 총학생회를 장악하면서 AF(반파)그룹의 위상이 높아진다. 1991년까지는 제파PD그룹이 민중민주파 학생운동에서 다수파였는데, 민중민주파의 각 정파그룹 간 테이블인 SPY에서 제파PD 출신이 의장에 당선되는 것에서도 나타났다.

(2) 반독점PD 학생운동그룹(AMC그룹)

반독점PD 학생운동그룹은 '현실과 과학'이라는 잡지 발간을 주도하던 '노동계급'이라는 정파조직의 영향 하에 성장했다. '노동계급'그룹은 노동현장의 자생적 활동가들과 '현실과 과학'이라는 이론 잡지를 발간하던 젊은 학자들이 결합하여 만든 조직이었다. 그들은 맑스-레닌주의에 입각하여 남한사회주의혁명을 위해 전국적 규모의 '혁명적 노동자계급 전위당' 건설을 지향하는 강령과 조직규약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었다(『동아일보』 1990/02/13).

AMC 학생운동그룹은 외부세력의 작용에 의해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자생적으로 만들어졌고, 나중에 1989년 초경부터 전위적 조직의 성격을 지향하던 '노동계급'이라는 정파조직과 연결되어 조직적 지도-피지도 관계를 맺게 되었다. 하지만 AMC그룹은 1989년 말에 다시 '노동계급' 그룹과 결별하고 학생운동 자체적으로 존립하면서 활동해 나갔다. 여기에는 '노동계급' 그룹이 인민노련, 삼민그룹 등과 함께 한국노동당을 결성하고 합법주의로 나가게 된 것이 결별의 이유로서 가장 컸다.

조직구조는 초기에는 이원적 구조였다. 즉 학생운동 정치조직으로서 AMC PD그룹으로 묶인 학교별 틀이 있고, 그 속에 바깥의 전위적 비합법 정파조직인 노동계급과 연결된 프랙션그룹들이 여러 학교의 AMC그룹 학생운동을 연결하고 지도하는 구조였다. 이런 구조는 내부 노선투쟁을 거쳐 1992년 '대장정학생연합'이라는 반합법 공개학생정치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조직을 결성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민중민주파 학생운동 분파들 중 처음에는 일명 제파PD그룹의 세력 규모가 가장 컸지만, 1992년경부터는 AMC그룹이 민중민주파 학생운동의 다수파가 된다. 반독점PD파 학생운동그룹은 주로 고려대, 성균관대, 서울대, 성신여대 등에 많이 분포했다. 1990년 일명 제파PD파 학생운동그룹과 연합하여 서울대 총학생회선거에서 당선자를 내게 되었고, 그 후 서울대에서는 1992년 이후로 민족해방파와 교대로 총학생회를 장악했다. 1992년에는 서울지역 북부지구를 중심으로 고려대 등 여러 대학에서 총학생회장을 다수 배출하여 이들이 서울지역 북부지구대학생총연합(북부총련)의 조직을 장악한다. 이때는 대구, 인천 등 전국적으로 민중민주파가 총학생회를 가장 많이 장악했던 해였다.

(3) 진보학생정치연합(진학련) 학생운동그룹

진보학생정치연합 그룹의 기원은 1991년 하반기에 결성된 한국사회주의노동당(한사노)이 합법적인 대중정당인 한국노동당으로의 전환,[5] 그리고 뒤이어 민중당과 합당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1991년 7월경 민중민주파 계열의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민주주의민족통일노동자동맹(삼민동맹)', '노동계급' 등 비합법 노동운동 조직체들이 연합하여 '한국사회주의노동당창당준비위원회(약칭 '한사노')'를 결성하였다. 그것은 혁명적 계급정당 건설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면서 합법정치전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정당건설 노선을 제기한 것이었다. 즉 노동자계급이 중심이 되어 독자적인 합법정당을 건설하고 이러한 합법정당을 통해 의회민주주의의 정치공간을 활용함으로써 민주

5) 1991년 가을 "재고를 요청함"이라는 팸플릿을 계기로 한사노는 한노당으로 노선을 전환한다.

적 계급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는 것이었다. 그에 입각하여 이들은 1991년 12월 15일 241명의 추진위원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자정당건설추진위원회(노정추)'를 발족하였다. 노정추의 신노선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을 비롯한 여타 다양한 좌파의 소규모 노동운동 조직체들로부터 개량주의나 패배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노정추는 1992년 1월 '한국노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였고, 곧이어 민중당과 통합하여 통합민중당을 결성하기에 이른다.[6] 진학련은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학생조직단위로서의 성격을 갖고 형성된 것이었다.

진학련은 원래 'OO(일명 '땡땡')'이라는 이름의 비합법 조직의 틀로 존재하면서 기관지 '진실'을 발간했다. 'OO'은 인민노련, 삼민그룹, 노동계급, 중부지역 PO그룹의 영향을 받는 학생운동이 결합한 조직이었다. 그런데 한사노의 한노당으로의 노선전환과 함께 1992년 5월 명지대에서 공개학생정치조직인 '진보학생정치연합(진학련)'을 결성한다. 세력규모는 1992년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연세대(원주), 영남대 등 10여 개 총학생회를 장악했고, 1993년 한총련 1기 의장선거에 출마하여 전대협의 정치성, 정파성을 비판하기도 한다. 대외적으로 진학련은 1992년 백기완 후보 선거대책본부(백선본)와 1992년 총선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노동당과 통합한 민중당을 지원했다.

그들은 공개학생정치조직을 표방하고, 학생대중의 생활에 걸맞은 정치활동 지향, 비합법-특위의 형식으로 지속해 온 학생운동의 재생산과

---

6) 주대환, 민영창, 이용선, 전성, 김동호 등 노정추 지도부의 구속은 노정추의 활동을 크게 제약했고, 민중당에 사실상 흡수통합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된 재판과정에서 구속자들이 비합법 전위노선을 폐기하고 폭력혁명노선을 부정하며 합법정당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는데, 이것이 운동권에서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성공회대 민주자료관 2009).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활동의 한계 절감, 사회주의 이념의 퇴조로 사회주의 지향은 유효하지만 레닌주의 노선(특히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사상)은 불가능하다는 인식, 대학사회 학생운동의 퇴조 및 쇠퇴에 영향을 크게 받았다. 진학련의 결성에 대해 대장정 등에서는 개량주의, 타협주의, 기회주의, 청산주의, 합법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AMC, 사노맹 계열의 학생운동그룹도 대장정, 전민학련 등 공개학생정치조직을 결성하게 된다.

조직구조는 캠퍼스단위-지역단위-전국단위로 이루어졌고, 전국회원이 1,800여 명가량으로 가입원서를 쓰고, 간부 및 체계 등 조직을 공개하고, 대의원대회 등을 공개적으로 개최했다. 정치교육, 정치홍보, 이슈캠페인, 여름캠프활동 등을 전개하고, 온건한 이미지를 갖추려 노력했다. 공개적 대회로 일 년에 대의원대회와 수련회를 두 번 정도 개최했다. 조직의 규율은 다른 민중민주파 학생운동그룹들에 비해 리버럴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다.

1994년 진학련 3기에는 민족해방 자주파인 생활정치대학생연합(일명 '생때'), 진보대학생연합(진대련)이 연합하여 21세기진보학생연합을 결성한다. 1996년에는 한총련의 연세대 사건 와중에서 진학련의 주요 간부들이 공안당국에 의해 체포되는 조직사건이 일어났는데, 강령상 사회주의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어 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 이후로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이다가 2006년 해산했다. 진학련은 민중민주파 학생운동의 레닌주의적 노선이 균열되면서 나타난 하나의 노선전환 시도였다. 그것은 민중민주파의 퇴조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했다.

2) PD파 학생운동의 집합적 특성

(1) 조직과 문화

민중민주파 학생운동의 조직 원리는 대체로 대중의 자연발생적 움직임보다는 전위의 목적의식적이고 선도적인 실천 활동을 강조하는 혁명적 전위주의의 노선을 지향했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구성원 간의 인정, 의리, 친목 등 일차적 관계를 토대로 맺어진 서클을 지양하고, 변혁운동의 목표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목적론적 인간관계에 기초를 둔 고도의 조직성을 지향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활동보다는 비밀활동을 강조하는 비합법주의가 기본 틀이 되었다.[7)]

그러나 민중민주파 학생운동그룹들은 변혁운동의 목적에 복무하는 고도의 조직 구조를 구상했지만, 실제로는 1980년대의 패밀리(family)라 불리는 서클운동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학습, 생활규율, 조직에 대한 지도 관리는 패밀리와 비슷했고, 단 차이가 있다면 학생운동이 민주화를 전후로 크게 대중화되면서 학생대중운동에 대한 지도가 강조되고, 시스템화된 정도였다고 할 수 있었다(정기준 구술). 민중민주파 학생운동은 조직의 원리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에 입각한 학생운동 외부에 존재하는 전위조직의 지도성을 관철하고자 했지만, 여기서 전위조직은 학생운동 출신자들이 연고관계를 매개로 결성한 정파조직으로서 고참 선배집단에 지나지 않는 면이 많았다. 어쨌든 그것은 학림, MT-제헌의회파 학생운동에서부터 민중민주파 학생운동그룹들 대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

7) 물론 진보학생정치연합처럼 민중민주파 학생운동 내에서 후기에 조직노선을 전환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도 원래는 전위주의, 비합법주의의 원칙을 공유했었다고 볼 수 있다.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다만 전위조직의 지도성을 세우는 과정에서 얼마나 실질적 지도가 이루어지는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MT-제헌의회-사노맹그룹 학생운동은 전위조직에 의해 학생운동에 대한 긴밀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 밖의 민중민주파 학생운동그룹들에 대한 바깥 정파조직의 지도는 사실상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바깥 정파조직들의 상태 자체가 서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데다 지역적으로도 분산되어 있어서 학생운동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여력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들의 조직 충원은 보통 과학생회(학회), 서클에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적극적인 학생을 발굴하여 비합법공간에서 별도로 훈련시키는 식이었다. 이들은 3학년 정도가 되면 비합법 멤버십을 부여받는다. 조직의 훈련은 학습, 투쟁, 생활규율로 이루어졌다. 학습은 이론적 의식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식화프로그램은 세계철학사, 변증법적 유물론, 사적 유물론, 자본론 축약판, 각국 혁명사 등의 사회과학 서적을 활용한 학습으로 이루어졌다.[8] 투쟁은 반정부 선도투쟁, 공장활동, 농촌활동 등 변혁적 실천을 지칭한 것이었다. 생활규율은 조직운동가로서 금기사항, 일상생활의 기본자세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설정과 상호강제에 관한 것들이었다.

조직의 운영은 하향식의 피라미드구조로 이루어졌다. 조직의 지도부는 비합법에 준하는 단위로 설치되었으며, 정파조직의 학습, 실천, 생활규율을 지도했다. 보상구조는 조직 내 지위의 변동과 상응하는 역할의 부여, 질책, 경고, 반성문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보상과 징계 등은 지도

8) 민중민주파의 의식화프로그램은 민족해방파에 비해서 고도의 수준이었고 강도가 높았으나, 역사 학습의 영역에서는 민족해방파가 항일무장투쟁사 등 풍부한 소재를 갖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러시아혁명사 등 한정된 면이 있었다.

부들의 판단으로 주로 이루어진다. 민중민주파의 조직 안에는 여전히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조직관계의 틀과 문화가 남아 있었다.

> "80년대 후반 학생정파운동은 80년대 전반기의 패밀리운동과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다. 여전히 폐쇄적이고 일방주의의 조직 틀 때문에 87년 이후에 활성화되기 시작한 학생회운동과 같은 대중운동의 흐름과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 학생정치조직운동에 대한 흐름들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정기준 구술)

민중민주파의 조직문화를 민족해방파의 조직문화와 비교하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나타났다. 민족해방파의 조직문화의 특징이 조직 자체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 리더에 대한 존중 같은 요소들이 강조됐다고 한다면, 민중민주파의 조직문화의 특징은 사상적 동질성에 근거한 존중이었기 때문에 민족해방파에 비해 조직이라거나 상급자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범위에는 상대적으로 제약이 있었다.

> "문화적 차이가 엄청났어요. 그 당시 전대협이 공개조직인데 정책위 사람들은 비합법조직처럼 운영되고 있었어요. (중략) 정책위 의장을 했던 분이 지금도 정확히 학번을 모르겠어요. 그때 받은 느낌으로는 최저 82학번 이상이라고 봤어요. 학번이 낮은 사람들은 나에게 적대적이었는데, 그 분은 저에 대한 태도가 매우 온정적이었어요. (중략) 당대에 같이 활동을 하는 데 정파의 문제를 떠났다면 감히 같이 말을 섞기 힘들 만큼 올드(old)한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 조직문화가 굉장히 봉건적이라고 해야 하나… 공식적인 회의를 하더라도 정책위 의장은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시를 주는 거예요. 지적질을 하고 딴지를 거는 사람이 될 수밖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에 없는 저는 굉장히 불경한 존재인거죠."(성지윤 구술)

민중민주파는 민족해방파의 이런 조직문화를 패권주의, 봉건주의라고 보고 거부감을 표출했다. 민중민주파는 실천활동 계획을 수립할 때 상황 인식부터 논쟁을 해야 하고, 지침의 수립에 대해서는 더 치열하게 논쟁을 해야 했다. 민중민주파는 상황 인식과 방침에 대해서 논쟁을 한 후에는, 사업프로그램의 기획과 실행에 대해서는 분권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보면 민중민주파의 조직문화는 민족해방파의 봉건적·권위적 조직문화 패러다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민주적·근대적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효율성이라는 면에서는 민족해방파의 조직문화가 앞서는 면도 많았다. 왜냐하면 민족해방파는 상황인식과 지침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않고 상급단위 리더로부터 전달되는 지침에 입각하여 사업기획과 사업성과의 창출에만 집중했기 때문이었다. 민중민주파의 조직에 대한 충성도나 헌신성은 민족해방파보다 약했다. 민중민주파는 끊임없이 비판적 문제의식을 통해 한국사회에 대한 학생운동의 인식 지평을 확대하는 데에서는 확실히 뛰어났다. 그러나 이 또한 머리가 공룡처럼 커져 고민은 많으나 대중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자주 받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성지윤 구술).

민족해방파가 특정한 상황에 맞는 리더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실용적 조직관에 기초하였다면, 민중민주파는 원칙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다소 경직된 조직관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민중민주파의 경우는 민족해방파에 비해 조직적 결속력이 쉽게 균열되고 분화되기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민족해방파는 단결의 최소조건을 내세우지만 민중민주파는 단결의 최대조건을 내세웠다. 이 때문

에 민중민주파는 민족해방파에 비해 단결의 조건이 까다로워서 분열적인 면이 많았다. 예를 들어 AMC학생운동그룹과 바깥의 정파조직인 '노동계급'그룹이 지도-피지도 관계를 매개로 만났다가 노선 차이 때문에 금방 결별하는 현상은 민족해방파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다. 민중민주파 AMC그룹 활동가 출신의 정기준 씨는 이렇게 말했다.

>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당시에 NL(민족해방파)을 보고 너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아무 생각이 없니?' 이렇게 물으면 NL들 같은 경우 대답을 못하죠. 그런데 PD(민중민주파)들 같은 경우 끊임없이 궁금하고 동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어야 동지적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건데, NL같은 경우의 말 그대로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이견 없이 수용하는 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던 거죠. PD활동가가 NL활동가를 보고 '무식하다' '공부가 안 됐다'는 식의 편향된 태도가 나타나기도 했던 것 같아요. PD는 사상의 통일, 입장의 통일이 이야기의 출발이기 때문에 자기주장의 확인에 강하게 경도됐던 측면이 있었고, 이게 지나칠 경우에는 아무리 선배가 이야기하더라도 나는 다르다고 갈라서버리는 경우도 있었던 거죠."(정기준 구술)

민중민주파의 조직문화는 학생운동 주류인 민족해방파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되기를 자임했지만 조직의 발전단계상 민족해방파의 안티테제에 머무르는 면이 강했다.

> "제가 생각하기로는 PD조직의 존립 근거 자체가 NL과의 대당성이었어요. NL과 구분되는 다른 형태의 노선, 문화,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NL의 미러(거울)인 면이 강했다. 노선으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 보면 NL이 정치운동이나 사태해석을 하는 데서 거의 모든 사안을 북한과의 관계 중심적 버전으로 가다보니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전대협, 서총련이라는 틀 속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학생들도 그 활동에 가담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 NL의 제도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안티테제로서 네트워크조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여러 네트워크들 간의 선거연합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점차 조그만 그룹들은 쇠퇴하고 고려대에서는 (PD파 중에서는) AMC계열이 가장 영향력 있는 세력으로 남게 된 거죠."(성지윤 구술)

민중민주파의 조직 내적 문제들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다. 한편으로는 한국사회에서 학생운동이 차지하는 지위가 퇴조하기 시작하면서 봉착한 학생운동의 한계로부터 기인하는 것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이념적 모델로 삼았던 소련·동구 사회주의권이 몰락하면서 밀려온 이념적 정체성의 혼란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와중에 1990년경부터 비합법정파조직을 민주적 룰을 갖는 학생정치조직운동으로의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민중민주파 내부에서 합법-비합법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조직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매우 근본적인 고민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민주화 이후 정치체제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둘러싸고, 한국사회에서 파시즘체제의 본질이 변할 수 없다고 보고 비합법노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측과 그렇지 않다고 보는 측, 그리고 합법공간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않는 것은 전략적 오류라는 중간의 절충적 문제제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쟁으로 이어진다. 또 사회주의권의 변동을 사회주의 전체의 몰락이라는 근본적인 체제전환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잘못된 사회주의국가의 몰락으로 볼 것이냐의 논쟁으로도 이어졌다. 이

런 문제들에 대한 논란은 결국 민중민주파 내에서 한편에서는 진보학생정치연합처럼 비공개적 비합법주의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개적 합법주의로 전환해 나가는 흐름과 다른 한편에서는 비합법주의를 고수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흐름들로 분화된다. 진보학생정치연합의 출범에 대해 중견활동가 출신 P씨는 "이념적·대중적으로 학생운동이 약화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재생산과 학생운동의 기운을 재생해 나가는 데 한계"를 절감했으며, "그런 흐름을 예측하고 그에 맞게 기존의 방식을 극복하는 새로운 학생운동의 방식을 모색"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 "사상 이념적으로 사회주의가 퇴조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대학사회는 투쟁의 기운이 삭아드는 상황이었어요. 당시 학생회장들은 임기를 못 마치고 감옥 가는 식의 활동이 하나의 고정된 패턴이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학생사회에서 대중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대중들의 공감대를 얻기는 어렵다고 봤어요. 공개정치학생조직으로 출범하면서 학생사회에 걸맞은 정치활동을 새롭게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거죠. 학생들의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학생운동의 내용과 형식의 변화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진보적 사회진출이라고 해서 일반 학생대중들도, 정치의식이 있는 학생들이 사회진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런 기치를 최초로 했었죠. (중략) 진학련에 대해서도 공개정치학생조직으로 출범했을 때 학생운동의 다른 제 정파들은 개량주의니 합법주의니 타협주의니 청산주의니 이런 걸 하면서 비판적으로 많이 봤었죠."(박준구 구술)

그러나 진보학생정치연합과 같은 공개적인 학생정치조직의 등장에 대해 개량주의, 청산주의라고 비판했던 다른 그룹들조차도 그 후 일정하게는 대장정학생연대나 전민학련 같은 공개적 학생정치조직을 만드는 쪽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으로 나아갔다. 당시의 사회운동과 학생운동이 전체적으로 침체기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운동 형태로부터 탈피해야 한다는 압력으로부터 민중민주파의 어느 정파그룹들도 자유로울 수는 없었음을 시사한다.[9)]

(2) 대중사업 방식의 특성

민중민주파와 민족해방파의 대중운동론의 차이는 대중성과 운동성의 관계, 자생성과 의식성의 관계에 대한 강조점의 차이기도 했다. 민족해방파의 대중의식의 현 상태를 변화시켜서 끌어올리기보다는 그 자체를 인정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대중사업을 벌이는 방식이었으므로 반대파로부터 대중추수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반면에 민중민주파는 대중운동을 하더라도 운동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했고, 운동성을 담보하지 않은 대중성을 수용하지 못한 면이 많았다. 민중민주파는 한국사회의 근본적 개조를 위한 의식성(이를테면 사회주의 이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소련·동구사회주의 붕괴로 민중민주파가 주로 지적·정신적 충격을 더 많이 받았던 것과도 관련이 깊었다.

민중민주파는 민족해방파와 비교하면 조직 내 규율과 의식화프로그램이 더 강했지만 민중민주파의 대중운동에 대한 개입과 지도에 대한 시야는 좁았다. 일례로 민족해방파는 '자주적 학생회'니 '민주적 학생회'니 하는 학생회운동론에 대한 몇 가지 틀이 있었지만,[10)] 민중민주파에는 그

---

9) 장석준(1998, 69)은 진학련의 실험을 정치조직-대중조직의 분리구축론이라고 부르면서, 그 같은 분리구축이 학생회의 사업내용을 순수한 조합기구로 전락시키고 학생회에 주요하게 배치되어 있던 진학련 조직원들의 정치적 긴장을 상실케 함으로써 변혁운동으로서의 학생운동의 성격 청산, 시민운동으로의 학생운동 투항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한다.

10) 서클운동의 극복을 주창한 이후 가장 큰 조직노선의 대두는 민족해방파에 의해 주도된 RMO

런 학생회운동론 자체가 없었다. 민족해방파에게는 주체사상에서 도입된 영도예술, 대중운동론과 같은 철학과 방법론의 토대가 일정하게 있었으나, 민중민주파에게는 그 같은 대중노선과 방법론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90년에는 서울대를 중심으로 민중민주학생회(일명 PDH) 논쟁이 벌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11] 이는 민중민주파가 학생회에 대한 영향력을 조금씩 넓혀가는 계기가 되기도 했으나 여전히 민족해방파에 비해서는 대중운동의 경쟁력에서 뒤처지게 되었다. 제파PD그룹 출신 활동가 김윤식 씨는 구술에서 "민족해방파에 비해 응집력과 대중 활동 능력이 떨어지는 데 대한 고민은 무엇이었나?"라는

(revolutionary movement organization) 노선이었다. RMO의 대상은 대중투쟁과정에서 단련된 활동가들이며 임무로는 RMO 주변에 다양한 대중을 조직하기 위한 투쟁과 조직화사업이며, 학번제철폐를 비롯한 민주적 운영방식을 표방했다. 1980년대 중후반에 나타났던 구국학생연맹이나 애국학생회로 대표되는 RMO는 전위조직인지 대중조직인지 애매모호하다는 비판 등을 이유로 스스로 해체선언을 통한 대안을 모색했다. 전투적 학생회는 RMO노선의 변화를 근거로 이루어졌는데, 학생회에 대한 위상과 역할을 협소한 틀에서 벗어나 폭넓은 대중을 대상으로 하되 단순한 자치조직이 아니라 대중 스스로의 훈련과 그를 통한 권력조직의 모체로 위치지우고자 했다(인하대공대편집부 1989, 191-192). 전투적 학생회론은 "학생대중을 정치화/전투화시켜 반정권, 반자본, 반미투쟁의 선봉대로 동원하는 한편, 대학을 변혁운동의 기지로 만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런 전투적 학생회론은 극단적으로 보아 정치투쟁이라는 하나의 문제만을 위해 학생들을 동원하는 데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았다(태재준 1998, 291-292).

11) 민중민주학생회론은 학생회의 일상투쟁을 경제투쟁으로 치환하려는 경향과 선진대중이 기본적 대중조직으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 조직으로 묶이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선진대중들은 학생회 각급 단위와 다양한 대중조직 속에서 간부로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학생회의 민중민주적 강화가 선진대중의 활동에서 일차적 임무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하지만 학생회 속으로의 무책임한 산개를 극복하기 위해 선진대중들의 활동이 결집된 힘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조로서 민중민주학생회의 예비간부진으로 구성된 조직을 꾸릴 것을 주장한다(안창훈 1989, 172). 민중민주학생회론은 민중민주파의 근본적 지향성인 전위주의를 보존하면서도, 민족해방파에 비해 치명적 약점이었던 학생회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켜 보고자 했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질문에 다음과 같은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 "88년에 전대협은 통일투쟁을, PD는 노학연대투쟁을 주장했다. 그래서 연세대 통일투쟁 현장에 늦게 결합했는데, 통일투쟁전술의 잘못을 알리고 노학연대투쟁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자보 하나 쓰고 나오는 것이 PD활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주안공단에 가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꽹과리 치는 PD활동과 5만여 명을 놓고 통일투쟁 하는 NL과의 차이에 비감을 느꼈다. NL파는 대중이 동의하고 참여하기 쉬운 활동을 하는데, PD는 대중적 경험을 할 수 없고 강한 의식성을 강조하는 선전중심의 활동, 이를테면 사회주의의 당위성을 알리는 것에 치중한다. NL파는 세 명만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주체사상 학습과 1백 명이 할 수 있는 일과 1천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잘 구분했다."(김윤식 구술)

초기 세력 형성 단계에서 민중민주파가 안고 있는 딜레마는 대중 활동 과정에서 많은 경직성을 노출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것은 "통일적인 전체 안에서 다수를 형성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다수에 승복을 하는" 민주적 룰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부족했던 것과 관련이 깊었다.

> "민족해방파의 문화는 통일성을 너무 강조했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소수자 입장에서는 매우 패권적이었다. 발언의 기회 자체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회의참석을 공지 안 해 줬다. 그런데 이는 민중민주파가 다수에 승복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할 기회를 결여하게 만든 원인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것이 심지어는 좌파끼리 사업을 할 때도 관성으로 작용했고, 사회에 나와서도 여러 행동 속에 연장된 측면이 많았다."(성지

윤 구술)

민중민주파 학생운동세력들의 그 같은 문제들이 완고하게 주장되기만 한 것은 아니었고, 민족해방파와의 공동의 대중사업을 통한 접점 속에서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경주하였다. 민중민주학생회론의 제기를 통해 대중운동론의 부재를 극복해 보려는 시도도 그런 노력의 하나였다. 진보학생정치연합과 같은 새로운 노선을 제창하고 나온 것도 그랬다. 특히 민중민주파 학생운동세력이 대학 총학생회를 장악하는 숫자가 점차 늘어나고 그에 따라 민족해방파가 거의 전유하다시피 했던 서총련-전대협에서 일정한 지위와 역할을 맡게 되면서 그 같은 노력들은 점점 뚜렷이 나타났다.

AMC그룹 출신의 활동가 성지윤 씨는 1992년 당시 서울지역 북부지구학생총련의 정책위원장으로서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총련) 지도부에 참여하여 민족해방파 간부들과 함께 연합활동을 경험했었던 사람이다. 그는 "민중민주파가 이전의 민족해방파에 대한 사보타지 일변도의 전략에서 대중적 사업에 참여하여 공동 실천하는 집단적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민족해방파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대중사업을 같이 하면서 일 년 내내 싸웠어요. 기억나는 게 그때 한 양대에서 전대협 집회를 했었는데, 허영이라는 PD쪽 고려대 총학생회장이 서총련 북부지구 의장이라서 전대협 총회를 같이 하는 걸로 하고 한 양대에 들어갔는데, 좌파블록만 따로 집회를 하고 전대협 총회에 일원으로 합류하는 걸로 딜링을 한 거죠. 그 전에는 전대협 총회를 하면 한 공간에서 같이 하지 않고 따로 따로 했었어요. NL이 다수파인 걸 인정하고 대신에 아지프로(선전선동)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식으로 딜을 한 거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죠. 그게 받아들여져서 한양대집회를 같이 한 거죠. 이제는 싸우면서도 공동의 사업이라는 마인드의 형성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성지윤 구술)

그러면서 민족해방파와 민중민주파 간에는 서로 상대방의 투쟁의제를 공동실천의 대상으로 수용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PD파는) 자신의 아이덴티티(정체성)를 찾을 때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하나는 노동, 노학연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노선들을 만들어나가는 거고, 이게 결과적으로 서총련이나 전대협이 노학연대 쪽으로 가게 만드는 효과를 가졌던 것 같아요. (중략) 전대협 정책위의장이나 그 사람들과 딜(거래)을 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공존하기 힘든 적대적 구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해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제가 노동문제에 대한 사업을 제안하고 같이 집회하자고 하면 다 받아요. 단 같은 시기에 통일문제라든지 북한에 대한 대응문제가 국내적인 문제와 결착이 되면 불가능한데, 이 분들한테도 세컨드 오더 정도로는 공존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죠."(성지윤 구술)

하지만 전체적으로 민중민주파는 대중정치의 구현에 실패했다고 보인다. 그들은 자신들을 학생운동의 전위로 사고했으며, 대중의 자발적이고 무의식적인 행동을 대중추수주의라는 자신들의 보편화된 언어로 경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중을 통제와 규율, 지도의 대상으로 고정시켰다(김원 2011, 190-209). 민족해방파도 그런 방식의 사고 문화에서 자유롭지는 못했으나, 민중민주파에게는 혁명적 전위주의라는 기저에 흐르는 노선적 문제의식으로 인해 그 같은 결점이 더욱 증폭되는 경향이 많았다.

요컨대 “민주적 결정이 작동할 수 있는 제도와 규범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통일적인 전체로서의 귀속감, 그 안에서 다수가 형성되기 위한 룰과 절차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일단 승자가 만들어지면 그에 승복하는 문화”(성지윤 구술)가 있어야 하는데, 민중민주파는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식들이 약했다. 민중민주파는 “북한체제를 저렇게 봐도 되나, 사회주의체제의 전환과 이행을 어떻게 봐야 하나, 한국사회의 문제가 단순히 독점자본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등 끊임없이 근본적 질문을 던지면서 다기한 사회적 인식 프레임을 확장하는 데 기여”(성지윤 구술)했지만 역설적이게도 대중 활동 공간에서 민주적 룰에 입각한 행위규범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여전히 많이 부족했다.

(3)사회적 기반과 배출

민중민주파는 학생운동 이후의 긴 전망에 대해 고민하고 만들 수 있는 관점이나 조직이 부족했다. 민족해방파는 ‘애국적 사회진출론’을 내세우면서 학생운동 이후의 다양한 사회 진출 통로를 인정했고, 이것이 그들의 조직적·대중적 기반을 넓히는 데 실리적으로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민중민주파는 운동성을 견지한 사회진출, 이를테면 노동현장으로의 진출이나 전국노동자협의회(전노협)운동 등 국한된 영역에서 사회진출만을 정통으로 내세우다 보니 조직적·대중적 기반이 좁아지는 경향이 생겼다. 그래서 민중민주파의 이 같은 약점을 극복해보려고 나중에 진보학생정치연합은 민족해방파의 ‘애국적 사회진출론’에 상응하는 ‘진보적 사회진출론’을 내걸기도 한다.

하지만 민중민주파의 사회진출에 대한 관점과 태도가 항상 고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AMC그룹 출신의 활동가 정기준 씨는 “민중민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파도 나중에는 노동운동 외에 생협운동, 환경운동, 지역공동체운동 등에 대한 포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을 수립하면서 사회진출의 폭을 넓혀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그것이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하면서 넓어지는 것인가의 문제는 있지만 2000년대 이후 이 분야가 활성화되면서 민중민주파의 공간이 넓어진 면이 있다. 반면에 민족해방파는 시간이 흐르면서 반대의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한국청년연합(한청)이 사상적 순결성과 운동성을 견지하는 NL청년단체와 전대협동우회, 청년문화정보센터 등 운동성을 상실한 청년단체들로 쪼개지면서 민족해방파의 운동공간은 더욱 협소해진다"라고 말했다.

사회적 기반의 관점에서 볼 때 민족해방파와 민중민주파는 일정한 차이점을 나타내기도 했다. 활동가들의 지역적 출신분포로 볼 때 대체로 민족해방파는 광주·전남의 대학들이 중심에 섰으며 서총련-전대협 간부 활동가들 중에도 호남출신들이 많았다. 반면에 민중민주파는 서울과 수도권이 활동의 중심이었고, 호남출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이 있었다. 이런 차이는 상당히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이런 특징들은 민중민주파의 과도한 이론적 경향과 결합되어 민중민주파가 지방대학으로 세력 확산이 쉽지 않았던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론된다. 그 외에 계층적 기반의 차이는 특별하게 발견되지 않았다.

활동가들의 사회적 배출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민중민주파는 유럽이나 일본의 학생운동이 걸어갔던 것과 비슷한 패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유럽에서도 68혁명 이후 학생운동 출신자들이 학계와 문화 쪽에 많이 투신하고, 정치권에서는 녹색당 등 기성정당이 아닌 신생정당을 만드는 데로 진출하는 현상을 보인다. 일본에서도 전공투 학생운동 출신들이 주류제도권 진출이 막히면서 생활협동조합운동이나 지방차원의 풀뿌리자치운동이나 학계에 진출하고 일부가 좌파정당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

인다. 한국에서 민중민주파 역시도 노동운동으로 진출로부터 시작해 환경, 지역커뮤니티, 생활협동조합운동에 포진해 나가고, 영화, 노래 등 문화운동과 학술운동 영역으로 많이 진출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유럽이나 일본의 학생운동에서 보이는 일반적 특징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에 비하면 민족해방파의 사회적 배출은 아주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활동가 출신의 상당수가 제도정치권의 주류 속으로 진출하고, 학생운동의 압도적 다수파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민족문제에 천착하여 통일운동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그렇다.

4. 종합과 결론

1980년대 초에서 1990년대 초까지 학생운동에서 양대 세력을 형성했던 민족해방파와 민중민주파 간의 대립을 관통했던 주제들은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의 차이, 민족 문제와 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 조직노선과 투쟁노선의 차이 등 총체적인 영역에 걸쳐 있었다.

그 속에서 민중민주파 학생운동은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의 전통적 관념, 노선, 방법들에 대해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고자 했다. 그들은 한국사회에서 자본주의의 고도의 발전 현상을 과학적 변혁운동이론의 틀 속에 담고자 했고, 민주주의의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했다. 중앙집권적이고 일정하게는 봉건적인 조직구조와 정서적 인간관계에 기초한 학생운동의 불철저성을 과학적 이론에 입각한 토론과 논쟁 그리고 분권화된 조직시스템으로 바꿔내는 새로운 노선을 정립하고자 했다. 또 그것을 통해 학생운동의 낭만성, 개량주의를 극복하고 혁명주의노선을 세우고자 했다.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민주파 학생운동의 실험은 명확한 자기 한계를 넘지 못했다. 그들은 학생운동 개조의 과제를 역사 속에서 소멸해 가는 레닌주의의 혁명 전략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다. 그들은 한국사회의 근본적 개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연발생적 운동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개조에 대한 의식적 지향과 노선이 필요한데, 과학적 사회주의와 레닌주의의 근본적 가치들을 구현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 같은 이념적 가치들을 20세기 후반의 한국사회에 적용해내기 위한 방법들을 치열하게 모색해 나갔다. 의식성과 선도성의 기념에 기초한 혁명적 전위주의의 실험들이 그것이었다. 하지만 그 같은 이념적 가치와 전략이 갖는 내재적 모순과 한계는 20세기 후반에 급속히 진행된 소련·동구사회주의의 몰락 속에서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표상되어 나타났다.

민중민주파의 그 같은 노선 실험들이 지닌 한계와 오류는 현실의 운동 과정에서 다양하게 표출되었다. 과도한 의식성과 전위성에 대한 강조는 대중의 자생적 에너지와의 결합을 소홀히 하게 되었고, 조직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하부 단위들이 방향성을 상실하고 자생적 복원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현상이 되풀이되었다. 또 과도한 이념지향성과 이론주의의 편향은 활동가들의 배타적 개인주의적 성향을 형성했고, 민중민주파 내부의 여러 그룹들 간에도 서로의 차이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단결의 저해를 가져왔다. 비합법주의와 전위주의는 과감한 대중적 활동을 제약했을 뿐만 아니라 내부의 민주주의적 조직 절차와 운영을 활성화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선도적 투쟁론에 입각한 활동가 조직의 비중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민주화에 의해 정치적 공간이 크게 확장되고, 일반 학생대중의 역할이 중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시하게 만듦으로써 학생대중의 지지를 얻는 데서 민족해방파에 크게 뒤졌다. 이론주의의 편향은 엘리트주의, 계몽주의의 문화를 확산시켰고, 일반 학생대중들이나 지방

대학 활동가들에게는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이었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요하게 제기하고, 그들의 조직문화 역시 토론과 논쟁을 중요시하며 활동방식에서 분권적 시스템으로 처리해 나가는 면이 많았지만, 혁명적 전위주의와 비합법주의의 지향은 민주적 룰에 입각한 활동을 끊임없이 방해했다. 결과적으로는 대중을 통제와 규율, 그리고 지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대중의 자발성을 경시함으로써 운동엘리트주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내재적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고 축적되어 가면서 어느 시점부터 민중민주파 학생운동 내부에서는 각 분파들 간에 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AMC, 제파PD, 전민학련 등은 대체로 이념주의, 이론주의의 지향성이 강하고, 조직노선에서 비합법주의를 고수했던 반면에, 진학련은 한국노동당의 영향 아래 경험주의에 근거하여 현장성, 대중성, 합법성, 공개성을 강조하는 실용적 노선으로 나아갔다.

참고문헌

강신철 외. 1988. 『80년대 학생운동사: 사상이론과 조직노선을 중심으로(1980~1987)』. 형성사.

강형민. 1990. "1980년대 조직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 『경제와 사회』 6호.

김 원. 2011. 『잊혀진 것들에 대한 기억: 1980년대 대학의 하위문화와 대중정치』. 이매진.

김윤철. 2012. "'NL-PD' 해묵은 갈등이 결국 진보당 발목 잡았다." 『한겨레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신문』. 2012년 6월 19일.
박덕건. 1989. “학생운동의 새 흐름 PD그룹.”『월간중앙』(60). 중앙일보사.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2009. “신노선의 등장: 비합법 전위정당 노선에서 독자적 합법진보정당노선으로” (http://www.demos-archives.or.kr/research/document_party_view.php?no=3250&bbs=party&pageNo=1&specified_date=).
안창훈. 1989. “학생운동 조직논쟁의 혼란.”『고대문화』(31).
유길성. 1989. “학생운동권 변혁이론 PD의 실체.”『현실초점』 1호.
은수미. 2003. “의식화조직. 사회운동. 그리고 대항이데올로기.” 김진균 편저.『저항. 연대. 기억의 정치 1』. 문화과학사.
이동규. 1989. “학생운동. 투쟁이슈 약화로 분열 심할 듯.”『민족지성』 46호.
이수인. 2008a. “1980년대 학생운동의 민족주의 담론.”『기억과 전망』(18).
_____. 2008b. “대립성의 경합과 일면성의 확산: 1980년대 학생운동.”『사회와 역사』(77).
이승훈. 2005. “한국 사회운동가들의 정체성 형성과정: 사회운동 참여경험을 중심으로.”『경제와 사회』 66호.
이희영. 2005. “체험된 폭력과 세대 간의 소통: 1980년대 학생운동의 경험에 대한 생애사 재구성 연구.”『경제와 사회』 제68호.
인하대공대편집부. 1989. “80년대 학생운동사.”『인경』(8).
임경민. 1989. “NL이냐 PD냐. 학생운동의 노선투쟁.”『신동아』 1989년 7월호.
임희섭. 1999.『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이론』. 고려대출판부.
장석준. 1998. “90년대 학생운동의 비판적 회고와 전망.”『오래된 습관 복잡한 반성: 90년대 학생운동에 대한 성찰과 반성』. 이후.
조대엽. 2005. “1980년대 학생운동의 이념과 민주화운동의 급진적 확산: 반민주의 분화와 대중화전략을 중심으로.”『한국과 국제정치』 21(4).
조희연. 1988. “80년대 학생운동과 학생운동론의 전개.”『사회비평』 창간호.

태재준. 1998. “학생운동을 위해 논의하고 싶은 열 가지 주제.” 『오래된 습관 복잡한 반성: 90년대 학생운동에 대한 성찰과 반성』. 이후.
채장수. 2007. “1980년대 한국 학생운동의 자주노선.” 『한국동북아논총』 42집.
최성일. 1990. “1980년대 한국사회급진변혁론의 형성과 추진에 관한 연구: CA, NL, PD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구술채록 자료(정석진, 정기준, 성지윤, 김윤식, 박준구).

『경향신문』, 『동아일보』.

Mellucci, Alberto. 1989. *Nomads of the Protest: Social Movements and Individual Needs in Contemporary Society*.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Morris, Aldon D. 1984. *The Origins of the Civil Rights Movements*. New York: Free Press.
Snow, David A., Burke Rochford Jr, Steven K. Worden, and Robert D. Benford. 1986. “Frame Allignment Process, Micromobilization, and Movement Particip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

투고: 2013.9.20 심사: 2013.10.10 확정: 2013.11.5